

**6월 3일(월) / 잠언 16~18장**

▶내용요약: 16장은 사람이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할 것을 말하며 교만한 마음과 공평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그로 인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됨을 경계한다. 17장은 화복할 것을 권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다툼과 시비를 그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말을 삼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 18장은 자기주장만 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 말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권한다. 또한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말을 삼가 조심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피할 것을 권한다.

▶질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 )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 )하는 자니라”(17장)

▶생각하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이다. 형제와 주변 이웃들과 살아 갈 때 교만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말을 하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간 상처만 남게 된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가?

**6월 6일(목) / 잠언 25~27장**

▶내용요약: 25장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신하의 자세와 송사에 임하는 자세를 알려주면서 충성되고 즐거운 자가 얻는 유익함을 말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대할 때 원수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악에 굴복하지 말고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26장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처신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게으른 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온유한 말이 다툼과 시비를 그치게 하므로 말을 조심할 것을 권면한다. 27장은 인생은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신의를 지키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권하면서 재물도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으므로 가진 부지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

▶질문: “자기의 이웃을 쳐서 ( )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25장)

▶생각하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기자는 말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야 할까?

**6월 9일(일) / 전도서 4~6장**

▶내용요약: 4장은 인생 가운데 학대하고 학대 받는 자를 보며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고 하는 전도자는 수고와 재주도 시기함을 일으켜 헛되며 열심히 수고하여 재산을 불렀어도 물려줄 자가 없는 헛된 수고였음을 말하면서 혼자보다는 둘의 유익함을 말한다. 5장은 성전에서의 예배 태도를 말하는 전도자는 말씀을 잘 듣고 함부로 말하지 말하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값이라고 권면하면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6월 4일(화) / 잠언 19~21장**

▶내용요약: 19장은 재물이 때로는 사람을 얻게도 하므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것과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을 권한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노하기도 쉽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권한다. 20장은 다툼과 게으름을 멀리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은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21장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므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것, 마음과 눈을 교만하게 하지 말 것, 정직하게 살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볼 것, 그리고 연락을 멀리할 것을 권면한다.

▶질문: “( )와 ( )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21장)

▶생각하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삼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읽으면서 상당 부분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6월 7일(금) / 잠언 28~31장**

▶내용요약: 28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버리는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가난하여도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한다. 29장은 견책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필경 망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열거하는 기자는 왕은 어려운 자를 돌보고 부모는 자식을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을 권면한다. 30장은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다고 전하는 기자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 일을 간구한다.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말한다.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다 ( )하며 하나님은 그를 ( )하는 자의 방패시니라”(30장)

▶생각하기: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식은 어디에 있으며 최우선적 선택은 무엇인가?

고 권면한다. 6장은 사람이 소원하는 재물과 존귀와 부요함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면, 자손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낙태된 자가 평안함을 가지고 있기에 더 낫다고 토로하면서 지금의 삶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유익하나 이것도 헛되다고 선언한다.

▶질문: “( )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살아있는

**6월 5일(수) / 잠언 22~24장**

▶내용요약: 22장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재물보다 은총과 명예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것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한다. 23장은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재물을 좇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 훈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 것 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청중하고 공경하라고 당부하면서 피하여야 하는 일들을 열거한다. 24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시므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한다.

▶질문: 소망 있는 삶을 위하여 언어나 할 것은 무엇인가?(24장)

▶생각하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6월 8일(토) / 전도서 1~3장**

▶내용요약: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된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한다. 1장은 인생사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마음을 다하여 살피고 연구하여도 번뇌와 근심만 더하고 수고로울 뿐이며 만물도 피곤하다고 토로한다. 2장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낙도 희락도 누리보았건만 이도 헛되어 남는 것이 없으며 사업을 크게 하여 가산을 풍족하게 하였어도 마음에는 쉼이 없고 헛된 것이었다고 토로한다. 3장은 만사에는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고 선언한다.

▶질문: “지혜가 많으면 ( )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 )을 더하느니라?(1장)

▶생각하기: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음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고 한다.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는가?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 )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6장)

▶생각하기: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며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